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공채(남·여) · 101경비단 -

【한국사】

응시 번호 :

이름 :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원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동검
- ②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③ 여주 혼암리 유적 - 오수전
- ④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문제해설

원사시대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시대를 말한다. 역사구성을 문헌자료 유무에 따라 편술하는 경우, 문헌자료가 풍부하게 있는 역사시대와, 문서기록이 전혀 없는 선사시대 사이에 해당하는 과도기를 말한다.

- ①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는 비파형동검과 함께 청동 도끼를 만들던 거꾸집이 발견되어 이곳에서 청동기의 주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탄화미(불에 타거나 지층 안에서 자연 탄화되어 남아 있는 쌀)도 출토되어 벼농사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양양 오산리 유적은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의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호숫가 모래언덕에 있다. 이 유적에서는 이음낚시바늘, 빗살무늬토기, 돌도끼, 돌칼 등이 출토되었다.
- ④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는 덧무늬토기·빗살무늬토기·겉아귀토기 등의 여러 종류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돌도끼, 작살, 화살촉, 낚시바늘 등의 도구와 조개껍질로 만든 팔찌 및 사람 얼굴조각이 출토되었다.

오답노트

- ③ 여주 혼암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민무늬토기와 반달돌칼 등을 비롯해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오수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사용된 중국 화폐로 한반도 남북부에서 모두 출토되지만 북부 지방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정답 : ③]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② 『동국통감』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점전(폐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문제해설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호복(胡 오랑캐 호, 服 옷 복)을 입고 왔다고 한다. '호복'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오랑캐의 옷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를 조선인의 옷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위만이 고조선 사람이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이다.
- ② 『동국통감』에는 "신령스러운 사람이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와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니, 그가 바로 단군이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 ④ 위만조선은 1차 점전(폐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권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다.

오답노트

- ③ 우거왕은 한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며 위만이 몰아낸 왕은 준왕이다. 위만이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천명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기』 「조선전」에는 효혜고후사(孝惠高后時)라고 하였으니, 효혜제의 치세인 기원전 194년~기원전 180년 무렵일 것이다. 위만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여전히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유지하여, 이를 통상 위만조선이라고 한다.

[정답 : ③]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해아린다. 수해나 한재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 『삼국지』에서 동이전다

-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③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3세기 말 읍무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부여에 대한 자료이다.

- ① 49년에 부여왕은 후한 광무제에게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고, 광무제는 이에 후하게 보답하였다. 늦어도 이때에는 부여가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 ③ 왕 아래에 가족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지가, 구가의 가(加)가 있어 저마다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오답노트

- ④ 부여는 동으로는 읍무족을 복속시켰다. 부여는 북으로는 선비족, 남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정답 : ④]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2014 경찰_1차)

-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문제해설

㉢ 5세기 장수왕(재위 413~491) 때 상황이다.

→ ㉤ 532년(신라 법흥왕 19)

→ ㉡ 538년(백제 성왕 16)

→ ㉠ 오랫동안 비석의 정체를 알지 못하다가 조선 후기 김정희가 비문을 판독하여 고증하였다. 비의 건립연대는 555년 또는 568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555년으로 보는 견해는 진흥왕이 555년(진흥왕 16) 이 지역을 순수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비의 건립연대를 추정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황초령비·마운령비와 같은 연대인 568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문제에서는 555년으로 보고 출제하였다.

→ ㉣ 562년(신라 진흥왕 23)

[정답 : ②]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경찰_1차)

- ㉠ 거서간·차차웅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 ㉡ 이사금 - 연장자의 의미로, 박·삭·김 3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
- ㉢ 마립간 -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 강화
- ㉣ 왕 - 지증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체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문제해설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거서간과 차차웅으로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 박·삭·김의 3부족이 연맹하여 그 연맹장을 3부족에서 교대로 선출하게 될 때에 연맹장이라 의미에서 이사금을 칭했다.

㉢ 4세기 내물마립간 때 신라는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왕의 칭호도 대군정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이는 왕권이 안정되고 다른 집단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내물마립간 때 김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 『삼국유사』에서는 17대 내물왕, 『삼국사기』에서는 19대 눌지왕부터 마립간 칭호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기록상 차이가 있다. 국사교과서 등 통설에서는 내물왕 때부터 마립간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타당하다고 본다.)

㉣ 지증왕 4년(503) 국호를 신라로 하고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정답 : ④]

없었고 문서 작성의 첫머리를 의정부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의정부가 국정 최고 기관이 되고 비변사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오답노트

① 종종 때 삼도왜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기구이며 명종 때 율도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정답 : ①]

12. 다음은 조선 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①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②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③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④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해설

- ① 동서 봉당은 선조 때이다. 이조전랑의 자리를 두고 신진 사람의 지지를 받던 김호원과 기성 사람의 신망을 받던 심의경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김호원을 따르는 이들은 동인을 형성하고 심의경을 따르는 이들은 서인을 형성했다. 명종 때부터 정권에 참여한 기성 사람들은 척신 정치를 청산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람들은 척신 정치를 청산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 ②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 사건 등을 계기로 급진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이 집권하는 동안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③ 예송논쟁 당시 서인은 국왕과 사대부의 예를 같다고 보았지만 남인은 국왕은 사대부와 같은 예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노트

④ 노론은 대의명분을 존중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④]

13. 다음은 조선 시대 양반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문제해설

- ① 세종 때 정한 연분 9등법에서 풍흉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수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분 9등법의 적용은 실제에 있어 점차 하하년으로 고정되어 갔으며 1635년(인조 13) 영정법으로 1결 당 4두를 법제화하였다.
- ② 호를 기준으로 토산물을 거두던 공납은 대동법의 시행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쌀, 동전, 배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농민은 토지 1결당 12두를 납부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동전이나 배로도 납부할 수 있었다.
- (※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1결당 16두였으나 이후 감액되어 12두를 거두도록 하였다.)
- ④ 공납제도의 폐단은 당시의 다른 사회오순과 더불어 농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농민들의 유망을 가져왔다. 이는 호를 기준으로 거두는 공납을 납부할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도 손실을 가져왔다. 대동법은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되었다.

오답노트

③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용 등이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인데, 그 액수가 때로는 전세액의 몇 배가 되기도 하였다.

[정답 : ③]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문제해설

②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였으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나갔다. 이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오답노트

- ① 남자 위주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③ 조선 후기에는 적처 소생의 아들이 없으면, 딸이나 외손자가 있어도 양자를 들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 ④ 남귀여가혼에서 친영제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장자 위주로 상속되었다.

[정답 : ②]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경찰_1차)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찮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동국통감』의 서문이다. 제시문의 ‘주상’은 성종이다. 『동국통감』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7년(1476) 『삼국사절요』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되었고, 성종 14년(1483) 편찬이 다시 시작되어 『동국통감』 편찬이 완성되었다.

① 『동국통감』은 서거정, 이극돈 등이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책이다.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를 외기(外紀), 삼국의 건국으로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년)까지를 삼국기(三國紀),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신라기(新羅紀), 935년부터 고려 말까지를 고려기(高麗紀)로 편찬하였다.

오답노트

- ② 『동국통감』은 편년체 사서이다.
- ③ 이종휘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에 해당한다.
- ④ 한지윤의 『해동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 ①]

16. 다음은 조선 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제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교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교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문제해설

- ② 『경복궁조선의궤』, 『태조강헌대왕상정 의궤』와 같은 의궤명과 ‘태종공정대왕과 원경왕후의 의궤를 충주사고에 간수하게 하였다.’는 기록 등을 토대로 조선 초기에도 의궤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조선 전기의 의궤는 양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의궤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의궤이다. 남아 있는 의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01년(선조 34)의 『의인왕후비전혼전도감 의궤』이다.
- ③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두고 강화도에는 외교장각을 두었는데, 외교장각에 왕실 물품 및 의궤를 보관하게 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물러나면서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해갔다. 외교장각 의궤는 왕을 위해 제작된 아람용 의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람용 의궤는 분상용 의궤(다른 곳에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의궤)에 비해 더 좋은 종이를 사용하였고, 글자의 서체나 편집에도 보다 신경을 써서 제작하였다.
- ④ 이 때 약탈된 외교장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1993년 의궤 1책이 반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차례에 걸쳐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조선왕조 의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공내청 등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의궤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이다.

오답노트

①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이다. 의궤는 주로 국가적인 행사나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을 그림과 글로 기록을 남겼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정답 : ①]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국 국제 제정
-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③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④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문제해설

① 1899년 8월 대한제국은 9개조의 대한국국제를 반포했다. 여기에서 황제의 권한을 명문화하였다.
③ 각종 잡세의 부활, 홍삼 제조, 백동화 주조 특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황실의 재정을 확대하였다. 황실이 광산 등을 관리하고 경영하기도 했다.
④ 대한제국은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양전사업과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지계사업을 실시하였다.

오답노트

②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정답 : ②]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千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자를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①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③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문제해설

제시문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한 폐정개혁안이다.

- ① 고부 군수 조병갑은 만석보의 수세(水稅)를 강제 징수하고 아버지의 비박을 세운다고 군민들에게 돈을 거두어들이는 등 학정을 자행했다.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저항하며 전봉준 등이 농민군을 이끌고 항거한 사건이다.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아전들을 벌하고 곡식을 농민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였다. 정부가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게 했으나 그는 이 사건을 동학인의 소행으로 돌려 동학교도를 색출·탄압하였다.
- ③ 집강소에서는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고, 동학농민군은 이곳을 통해 폐정개혁을 추진하였다.
- ④ 손병희의 북접과 전봉준의 남접이 논산에서 만나 연합군을 이루어 북상하던 중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오답노트

② 텐진(천진) 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되었다.

[정답 : ②]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찰_1차)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문제해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수리시설 확대, 품종 교체,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농민들은 수리조합비와 비료대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 고통을 겪는다.
- ③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크게 늘어났다. 총독부가 일본은 발전된 공업 지역으로 유지하면서, 만주는 농업과 원료 생산지대로 만들고, 한국은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 ④ 1940년대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또, 광산이나 군수 공장으로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기도 하였다.

오답노트

①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농민의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정답 : ①]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 중 두 정치인이 발언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2014 경찰_1차)

-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욕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이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 포츠담선언
- ㉡ 제주 4·3 사건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 남북지도자회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 (가)는 이승만의 정음 발언(1946. 6), (나)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 : 울 읍, 알릴 고)함(1948. 2)이다.
- ㉠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결정(1947. 11). 하지만 소련은 위원단의 북한 입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위원단 접근이 가능한 남한 지역만의 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1947. 10)

오답노트

- ㉠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 선언(1945. 7)
- ㉡ 제주 4·3 사건(1948. 4~1954. 9)
- ㉢ 한국의 신탁통치를 논의한 모스크바 3상 회의(1945. 12)
- ㉣ 남북지도자회의(1948. 4)

[정답 : ②]